

## 남가주교협...부활절 연합예배 이어 사랑의 쌀 나눔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7일 기준 거의 20%에 도달하는 등 미국 내 교회들의 예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조병국 목사·이하 남가주교협)는 주요 행사들을 연달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다.

남가주 교협은 지난 6일 제 11차 사랑의 쌀 나눔을 아버지 밥상선교회에서 가졌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우이웃들이나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부족한 중에도 온정이 보였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에 협력한 교회는 주안에 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새생명전교회, 토랜스 은혜로교회,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토랜스 조은교회, 동문교회, 나성열린문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 미주베델교



아버지밥상교회에서 진행된 남가주 교협 제 11차 사랑의 쌀 나눔 ©남가주교협

회, 나성소망교회 등이며 남가주 교 협 상임이사회도 함께 후원했다.

남가주 교협은 앞서 4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은혜감사교회에서 드렸다. 대면예배 형식으로 진행된 올해 예배는 오세원 목사(남가주 교협 회계)의 사회로 최영봉 목사(부회장)가 기도했으며 조병국 목사가 “주의 부활을 믿는가?”(눅24: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병국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설교했다.

설교 후 이어진 특별기도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신앙부흥과 경제 발전을 위해”,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COVID-19 팬데믹 종식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 프랭클린 그레함 “지난 몇 달 동안 지옥의 모든 악마가 풀려났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프랭클린 그레함 페이스북 캡처

### 아칸소 주지사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 법안 서명위해 기도 요청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가 성별 위화감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의 호르몬 치료와 외과적 절단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도록 기도하자고 촉구했다.

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방송된 ‘Pray Vote Stand’ 방송에서 토니 퍼킨스 가족연구위원회 회장과 함께 출연해 “지난 몇 달 동안 지옥의 모든 악마가 풀려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좋은 입법안에 서명하고자 하는 선출 공

무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할 때”라며 아칸소주에서 발의된 ‘실험에서 청소년 구하기’(Save Adolescents From Experimentation) 법안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아이들에게 소년이나 소녀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사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여러분에게 약을 주거나 수술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은 사악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레함 목사는 복음주의자들에

게 좌파들보다 크게 목소리를 높이라고 조언하면서 “그 분(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분이 우리에게서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바란다. 오늘날 사회에 닥치고 있는 악의 쓰나미에 맞서 싸우자”라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미국이 도덕적 자유 낙하 상태에 있으며 그 속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교회가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레함 목사는 특히 아칸소 주지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기쁜우리교회 4기 장학생 선발... 5월 31일 제출마감

### 남가주 거주 및 남가주 소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유학생 지원 가능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장학위원회는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1도 기쁜우리교회 제4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본 주소지 혹은 학교 소재지가 남가주인 정규 4년제 대학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남가주 내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외국 또는 타주 출신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 신청은 △일반 장학생 △신학교 장학생 △선교사 및 목사 자녀 장학생 등 세 부분으로 나뉘며, 신청자는 한 카테고리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재정적 필요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요약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유학생이어도 가능하며 I-20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GPA가 2.7 이상인 학생으로 공식 성적표와 함께 재학 중인 대학교수나 출석 중인 교회 목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선교장학생은 신학대학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같다. 선교사 및 목사 자녀 장학생은 부모가 풀타임 선교사나 목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서는 기쁜우리교회 웹사이트 [www.joyfulccc.org](http://www.joyfulccc.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1일(월)까지 신청서는 이메일로 제출하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에배시안에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메일([scholarship2020@joyfulccc.org](mailto:scholarship2020@joyfulccc.org))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Email: [scholarship2020@joyfulccc.org](mailto:scholarship2020@joyfulccc.org)

org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7월 25일 발표되며 장학금 수여식은 8월 15일 기쁜우리교회 예배시간에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메일([scholarship2020@joyfulccc.org](mailto:scholarship2020@joyfulccc.org))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아시아에 대한 분노, 사랑의 마음으로 녹인다”

### 리폼드 대학교 코로나 백신 프로젝트 진행



7일 리폼드 대학교 회의실에서 코로나 백신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리폼드 대학교 정진오 부총장과 귀넷 약국 (Gwinnett Drug store) 대표 나비드 타와니(Naveed Tharwani)

리폼드 대학교(총장 박재식)가 지역 사회의 코로나 극복을 돕기 위한 백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귀넷 약국(Gwinnett Drug store)은 필요한 의료팀과 화이자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 백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리폼드 대학교 정진오 부총장은 “코로나 백신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아시아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지역 사회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섬김을 통해 미국 사회 내 만연해 있는 아시아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녹아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귀넷 약국 (Gwinnett Drug store) 대표 나비드 타와니(Naveed Tharwani)는 “귀넷

약국은 조지아 주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고 있다”며 “자신도 아시아인으로서 리폼드 대학교와 함께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리폼드 대학교에서 진행되며 1차 접종일은 4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이며, 2차 접종일은 5월 18일 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다. 신청은 리폼드 대학교 홈페이지 [www.runiv.edu](http://www.runiv.edu)를 통해 가능하다.

정진오 부총장은 “앞으로도 리폼드 대학교는 한인 공동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 미주복음방송 “2021 나눔 On(온) 캠페인” 특별 공개 방송 개최

### 오는 20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방송 진행



미주복음방송 나눔 On(온) 캠페인 특별 공개 생방송

365일, 주 7일, 24시간을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복음방송(AM 1190)이 코로나19로 영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오는 20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방송으로 “나눔 On(온)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청취자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하며 펜데믹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눴던

따뜻한 이야기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이번 공개방송이 퍼스트 펄빈 (First Penguin) 정신으로 커뮤니티의 고통에 동참하며, 사회적 감수성과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한 무브먼트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고통에 솔선수범으로 참여하셨던 분들과, 사랑의 빛을 지게 되신 분들의 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소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 방송에서는 세계 각 지역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와 선교지 소식을 나누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또 지역사회 섬김의 일환으로 푸드뱅크 나눔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한인들을 심사를 통해 선정해 재정적 지원도 할 방침이다.

문의) 714-484-1190

김동욱 기자

##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 2021 - 2022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4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 선발 인원

00 명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http://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1@joyfulccc.org](mailto:scholarship2021@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1년 4월 10일 ~ 5월 31일
- 선발 결과 발표: 2021년 7월 25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1년 8월 15일 예정 (추후 발표)

# 미국 스펠전 칼리지 한국부 올 가을 개설

### “세상을 섬길 역동적 배움과 실천의 장 될 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대학 과정을 담당하는 스펠전 칼리지(Spurgeon College)가 2021년 가을학기부터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다.

스펠전 칼리지는 미국 정규 인가 대학이며, 스펠전 칼리지 한국부 졸업생들은 미국 대학의 정규 학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스펠전 칼리지 한국부의 모든 학위 과정은 미국 고등교육위원회 (Higher Learning Commission)의 정식 인가를 받았다. 미국 고등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인가위원회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와 교육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공식 인정하는 기관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의 종합대학과 주립대학들의 인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스펠전 칼리지 한국어 과정은 신학과 통합과정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십 과정이다. 신학과 통합과정은 학사 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을 통합한 과정으로 보통 5년이 소요되며 16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교회를 위하여 사역할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및 사회의 각 분야에서 사역할 사역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십 과정은 보통 4년이 소요되며 1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미래 글로벌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갈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

로 한다.

스펠전 칼리지 디렉터 박영주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이후 격변하는 미래 사회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요청하고 있다”며 “스펠전 칼리지 한국부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정의와 살림을 가져올 청지기적 사명에 헌신된 한국의 젊은이들을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주교회 원로목사이자 미드웨스턴 특훈교수인 이동원 목사는

“스펠전 칼리지에서 설교의 왕자로 불리는 찰스 스펠전의 정신을 따라 수많은 제2, 제3의 스펠전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추천했다.

수업은 온라인 기반으로 한국어로 100% 제공하나 학습자의 영어 능력에 따라 영어로 진행되는 미국부 학부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캔사스 시티에 있는 본교 캠퍼스에 방문하여 집중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장 연구(Field Study)는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미국 동부의 교회와 대학교를 방문하여 조나단 에드워즈 등의 청교도 신학자들의 삶과 신학을 배우는 ‘청교도 삶의 여정’ 수업과 이스라엘 및 지중해 연안의 도시를 방문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 및 로마 제국 하의 신약 성도들의 삶을 조명하는 ‘구약 성경의 여정’과 ‘신약 성경의 여정’ 수업이 각각 개설되어 있다. 또한 한국 순교자들이 살았던 장소와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 근세의 역사와 순교자들의 삶을 배우는 ‘한국 순교자들의 여정’ 수업도 마련됐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며 기독교육사역에 헌신된 교수들이 수강 과목의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신앙 상담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며, 유학, 취업 등의 진로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역동적인 다양한 배움 속에 실천의 장을 펼쳐가기를 소망하는 희망자들은 학교 웹사이트 (www.spurgeoncollege.com/ks)를 통하거나 권민재 박사(이메일: ksc@mbts.edu; Tel: 816-414-3786)에게 문의하면 된다.

## 미성대학교(AEU) 영성부흥회 개최



AEU미성대학교 영성부흥회를 인도한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

AEU(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성대학교(이상훈 총장)가 6일부터 7일까지 ‘부흥!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영성부흥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7일 영성부흥회 둘째 날 강사로 지형은 목사(한복협 대표, 성락성결교회 담임)는 창12장 1-3절, 빌2장 1-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지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읍시다’고 말한 일화가 유명하다”며 “목회자들 중에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목회자로서

행복하려면 자신이 목사나 전도사, 사모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다.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구분은 없다”며 “기독교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며 “성경 66권의 기독교의 진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일상의 작은 것에 깊이 연관된다”며 “힘 없는 어린아이, 병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창기와 세리 같은 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집중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을 만나셨다. 한 사람을 만나실 때, 그에게 우주가 걸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다”고 했다.

지 목사는 “참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비움, 채움, 나눔이라는 세 가지 방법에서 얻을 수 있다”며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에서 얻는 복은 복인 것 같지만 아니다. 유사품, 모조품”이라고 했다.

이어 “또 다른 본문 빌립보서 2장 6-11절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는 핵심적인 말씀이었다. ‘케노시스기독론’(비움)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

야 한다.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는 걸려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며 “왜 교회와 다양한 직분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존재의 변화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 직무의 목표”라며 “성경, 생명의 말씀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붙였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는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를 애쓰지만 그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일상과 인격의 변화없이 세속적 방식으로 일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부정함 눈으로 타인을 보는 것을 그쳐야 한다. 거짓말과 악한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원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상은 초월의 신비가 깃드는 마당”이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현교수(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선교회), 권준목사(유일대), 신영민목사(복음선교회), 유관지목사(유일대), 김인식목사(KCC공로교회)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원당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관리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김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과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율법이다.

\*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 부흥성회

4월 22일(목) ~ 4월 25일(주일)

주제: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이다.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 자세한 문의는 주님의영광교회 행정실(213-749-450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날** 4월 22일(목) 7:30pm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시40:17)

**셋째날** 4월 24일(토) 7:30pm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히6:4)

**둘째날** 4월 23일(금) 7:30pm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고전1:18)

**넷째날** 4월 25일(주일) 8:00am, 10:30am, 1:00pm  
**환난의 강을 건너라** (시50:15)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02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치아파스 마누엘 목사에게서 온 전학”

신학교 졸업식을 축하하러 온 분들 중 한 분이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다.

예컨대 올해 21회 졸업생은 12명이었다. 남학생 9명, 여학생 3명 그리고 신학부는 10명, 교회음악부는 2명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각기의 노회에서 추천받아서 학교에 입학했었다. 신학부 졸업생들은 노회 산하 교회로 모두 정빙 되었다. 여학생들도 교회 성가대 지휘나 반주 또는 교회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된다.

지금 멕시코 남부지역 치아파스주 안에서는 각 처소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공인된 신학교를 거쳐 배출된 우수한 목회 지도자들이 그 원동력이다.

멕시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의존하던 때에서 이제 점점 창의적 독립 교회 개척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지난 20여 년 멕시코 선교지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또 멕시코 현지 교회 부흥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예들이 많지만 반면에 현지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독이 되는 불의한 영향력을 끼친 사례들도 너무 많았다.

멕시코와 남미 선교사들의 사역과 배치의 재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졸업식이 끝나고 학교는 4개월간의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각기 본교회의 여름철 사역을 돕게 된다.

치아파스주 오조쾡꼬 지역에서 목회하는 우리 학교 졸업생인 마누엘 목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열리는 시기라 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영접을 권하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했다.

마누엘 목사는 말한다. “선교사님! 우리 신학교에서 목회 후보자들을 더 많이 배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11개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하는데 계속하여 목회자 없는 지역에서 성도들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제 주변에만 10곳도 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힘든 줄 압니다만 입학 정원을 더 늘려서 학생들을 더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물어왔다. 자신이 추천하는 학생이 많아서 각 노회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정원이 초과되니 묻는 질문이었다.

현재 우리 신학교 입학 정원은 15명이다. 학년별로 15명씩 4년 과정 60명이 정원으로 4년간 기숙사에서 함축하며 교육을 받는다.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 한인선교사 3가정이 상주하며 같이 지낸다. 그들의 생활을 지도하며 지도자로서의 영적 자질을 가르친다. 학교를 책임지는 필자는 그들을 가르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매 학기 6명 내지 7명의 교수진, 총 20명의 교수진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우리 학교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이 교수의 사례비이다. 우수한 교수진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한다. 그들을 통해 우수한 현장 목회자들이 배출된다는 강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방학 기간 중 선교사들은 ‘입학정원을 더 늘리면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를 깊이 기도하며 고민해야 한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학교의 선교전략 중 하나인 지교회들의 교회 자립 전략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술 및 목축과 양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지원 전략을 소개하려고 한다. 멕시코 및 남미 지역에 적합한 좋은 선교지원 전략이라 생각한다. (계속)

##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⑬ “예루살렘 회의”

선교사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중요한 순간들(Critical Momentum)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면 회심과 소명(행9장), 피택과 파송(행13장), 선교 현장의 사역(행13, 14, 16, 17, 18, 19장) 그리고 교회의 공인(행15장)등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이방인 선교사로 일하게 된 바울에게 예루살렘 회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복음전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예컨대, 오순절 성령강림, 교회의 갈등과 집사 선출, 스테반 집사의 순교, 사마리아 선교 역사, 사울의 회심, 고넬료로부터 시작되는 이방인 회심, 예루살렘 회의, 이방인의 선교 여행 그리고 바울의 로마 압송과 복음 전파 등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에서 예루살렘 회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누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등에서 잃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테넌트(Timothy C. Tennent)박사나 스트롱(David K. Strong)박사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회의의 선교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결정 내용은 현대 선교 현장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보여주는 문제해결 접근법과 원칙은 오고 오는 세대의 선교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나 선교 현장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역행전’, ‘말씀행전’, ‘교회행전’이고 ‘선교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회의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장면에서 회의를 갖고 건강한 토의를 하고 생산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회의를 보여줍니다. 사도 보골 회의(선거)로 시작합니다. 6장에서 집사 선출회의, 사마리아 교회 대표 파송(행8:14), 회심자 사울 허입(행9:27), 고넬료 회심 후(행11:1-18), 안디옥 교회 선교사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출, 예루살렘 회의 등등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회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수용하려는 다섯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F.F. 브루스(Bruce), 리처드 보캄(Richard Bauckham) 그리고 윌리엄 파머(William Farmer) 등과 같은 신약신학자들은 예루살렘 회의가 5번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행15장과 갈라디아서를 비교하며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다섯 차례의 예루살렘회의는 독일 신학자 바우어 주장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Petrine Christians)과 이방인 기독교인들(Pauline Christians)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회의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제1차(행11장1~18), 제2차(갈18~19), 제3차(갈2:1~10), 제4차(행15:1~2, 갈2:11~21), 제5차(행15:6~29)등입니다.

다섯 차례 회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하려고 고민했던 초대 교회 리더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회의가 내린 결정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선교 지향적인 열심히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들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이방인들을 수용적으로 언급합니다(행2: 행6: 행8: 행11: 행13). 인종초월(Trans-ethnic) 문제는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다루

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 네 가지 사항을 금합니다. 이 네 가지는 사도행전에서 세 번 언급됩니다. 야고보 언급(15:20), 회의결정(15:29),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의 언급(행21:25)입니다. 우상제물, 목을 맨 짐승, 피를 먹을 것을 금하고 음행을 금합니다. 이것은 주로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행음에 관한 것을 금했습니다.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디오니소스(로마신화:바카스)를 숭배하는 종교는 산 짐승과 가죽을 뜯어 먹는 제례(祭禮)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피가 있는 고기를 먹으면 초인적 힘을 얻는다는 미신이 유행했습니다. 음행도 사교의 여사제(女司祭)들의 행음제례(淫祭禮)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금지 사항의 출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박뮤얼(Markus Bockmuehl)박사는 노아계약에서 나온 것이라 하고, 보캄(Bauckham)은 레위기언약(17장-18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학자들은 랍비 문서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나오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회의에는 예루살렘 지도자들, 바리새파 신앙인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같은 선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간단히 스케치하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발업(5절), 베드로연설(7~11절), 바나바와 바울의 설명(12절), 좌장 야고보의 정리(14~21절)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 입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명어도 지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2차 3차 그리고 로마 선교여행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청교도 신앙의 재등장, 죠엘 비키 박사

## 교회의 부흥, 교회성장론과 목회성공에의 재인식(8)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사역을 항상 겸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는데, 청교도들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췄었다. 필자는 “청교도가 답이다”는 주제를 담아서, 2020년도 말에 『청교도, 사상과 경건의 역사』(세움북스)를 출판했다. 과연 오늘의 시대에도 청교도의 신앙 유산으로 목회를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쓴 책이다. 청교도는 도서관의 고문서로 남아있거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희미한 과거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무슨 청교도 신앙이라고 비판적인 선입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제발 차분하게 청교도 사상과 저서들을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신학자로서의 탁월한 연구와 목회 사역을 통해서 미국에서 청교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분이 죠엘 비키 박사다. 그는 미시간 주 칼라마주에서 태어나서, 그 도시에 있는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했다. 필자는 칼빈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칼라마주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한인 유학생들을 섬기게 되자 웨스턴 대학교에 자주 방문했다. 칼라마주에서 한 시간 운전하여 북쪽 방향으로 차를 달리면 그랜드래피즈 시에 도착한다. 그 주변 일대는 네델란드 이민자들의 텃밭과 같은 곳이다. 필자가 칼빈신학원에 공부하고 있을 때, 주말날 영업을 하고 있던 대형 마케 “마이어” 앞에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주일성수를 주장하면서 데모를 한 적이 있었다.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도시를 주도하는 곳이다.

인구 18만 명이 살고 있는 그랜드래피즈라는 중소 도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대학교가 다섯 개나 있을 만큼 교육도시이다. 네델란드-아메리칸들의 도시이다. 이들 이민자들은 교육열이 남달랐다. 1879년에 세워진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대학원을 비롯해서, 카이퍼 대학교, 코너스톤 대학교와 미시간 신학대학원이 있다. 그리고 서쪽으로 30분 운전해 가면, 진보적이며 포용주의를 용납하는 “호프 대학”과 그 자매 학교인 “웨스턴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네델란드 이민자들의 교단(R.C.A.)이 세운 대학교이다. 이처럼 화란 이민자들 사이에서 진보파, 보수파, 온건파로 나뉘었고, 각각 학교를 세워나가고 있다.

이처럼 명문 기독교 대학이 많은 그랜드래피즈라는 도시에다가, 죠엘 비키 박사를 중심으로 “청교도 개혁신학대학원”(Puritan Re-



퓨리탄 리폼드 신학대학원 전경

formed Theological Seminary)이 1995년에 세워졌다. 청교도들과 네델란드 개혁교회는 깊은 유대를 통해서 박해를 견뎌냈다. 네델란드 개혁교회의 뿌리는 청교도들의 신학사상과 동일하다. 1550년대에 영국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바다 건너에 있는 네델란드로 숨어야만 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건너온 “메이플러워”호에 승선한 브라운과 청교도들은 영국 사람들이지만, 네델란드에 피신해서 십여 년을 살다가 다시 신대륙으로 건너 온 사람들이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토마스 카트라일은 네델란드의 안트워프로 피신을 갔다가 난민들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했다. 그의 제자 윌리엄 에임즈는 아예 네델란드에 건너가서 돌트 총회에도 참석했고, 프라네커 대학교수로 큰 기여를 했다. 이처럼 두 나라의 개혁교회들은 교류가 빈번했다.

그랜드래피즈 시에는 화란 이민자들 중에서, 극소수의 보수파가 명맥을 유지해 내려오면서 “헤리티지 개혁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었다. 새로운 지도자 비키 박사의 부임과 함께 조그만 신학교를 세워서 재도약하고자 시도하였다. 비키 박사는 웨스턴신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마쳤는데, 그의 졸업논문은 칼빈으로부터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확신이라는 요소가 일치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에서 캔달이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칼빈과 웨스턴신학 신학교 백서 사이에 일치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논박하는 정통 개혁신학의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난 후, 죠엘 비키는 홀로 신학교 교수 겸, 그랜드래피즈 시에 있는 “헤리티지 리폼드 교회”도 맡게 되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굴곡을 안고서 내려오던 이처럼 작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 숫자는 10여 개뿐이다. 이들은 순수한 성경 말씀만을 선포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화란 이민자들의 교회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화란어로 설교를 했었고, 목회자들도 대부분 네델란드에서 건너왔었다.

2차 세계 대전 후에, 많은 화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성실하고 사업성이 탁월한 화란 이민자들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인디애나 주, 아이오와주, 일리노이주, 캐나다 해밀턴, 런던, 온타리오, 그리고 미시간 주, 그랜드래피즈 일대는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삼던 화란 이민자들이 새로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다. 1879년에 칼빈신학대학원이 세워졌고, 독특한 화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천 여개의 CRC 교단 소속 교회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바, 상당학과까지 포함해서 재학생수가 370여 명이다. “칼빈대학교” 외에도 이 교단에 소속된 대

학들(Redeemer University, Trinity Christian College, Dordt College, The King's University)이 많다. 같은 화란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이미 그랜드래피즈에서 “칼빈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새로이 “청교도 개혁신학교”를 세워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랜드래피즈에서 살았던 필자의 무지함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났다. 죠엘 비키의 탁월한 교수사역과 목회로 인해서 불과 25년 만에 박사과정까지를 인가받았고, 풀타임 교수진이 10명에다가 강사진이 20명에 이르고, 전세계에서 온 재학생이 250여 명이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4년에 본관 건물 3백만 불을 현금으로 완공했고, 2014년에 부속건물을 또다시 3백 6십만 불에 완성했다. 모두 다 헌당 예배 직전까지 수많은 기부자들이 건축 대금을 완납하여주는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하였다고 비키 박사는 개교 25주년 예배에서 감격했다. 오직 순수하고 올곧은 청교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승리하고 있는 열매와 결실들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헤리티지 리폼드 교회”는 1908년에 교회 부속으로 세운 “플러머쓰 기독교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오백여 명이 재학 중이다. 또한 비키 박사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출판

사”(Reformation Heritage Publication)를 세웠고, 청교도들의 명저들과 그의 수많은 연구서들을 출판하고 있다. 그랜드래피즈시에는 이미 어드만, 존더반, 베이커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출판사 3대 회사가 막대한 출판사업을 하고 있다. 이 출판사들의 역량은 결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향해서 다양한 신학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특히, 존더반에서는 NIV 영역 번역 성경을 칼빈신학대학원 교수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냈고, 밀리언 달러를 신학원에 기증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순수한 기독교 경건서적들은 “종교개혁 헤리티지 출판사”에서 나온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s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미 국무장관, 종교 자유 증진 위해 설치됐던 위원회 해산

앤소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설치된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공식적으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5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인준청문회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한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제45차 국무부 인권 보고서를 공개한 기자회견에서 종교 박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 보고서는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인, 시민, 정치 및 근로자 권리와 거의 200개 국가 및 영토의 기타 국제 협약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기자 회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이 설치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9년 구성된 전문가 패널로 지난해 7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종교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권보다 중요하

고 주장한 바 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근본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라며 높이 평가했다.

당시 낙태 찬성 단체와 진동성에 단체는 이 위원회에 대해 "여성의 권리와 성소수자 권리를 절하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고 건설된 국제기구가 원래의 사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성됐다"라고 주장했다.

기독교 보수 단체인 가족 연구위원회 종교 자유 센터 부소장인 트레이비스 웨버(Travis Weber)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원회" 해산은 불행한 발전"이라고 CP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그러한 결정은" 종교 자유를 축소시킨다"라며 "외교 정책에서 종교 자유의 역할이 하향 조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솔직히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위원회가 종교 자유의 역할을 높이고 중요한 인권으로서 (종교 자유의) 역할을 분명히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국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아리랑뉴스 보도하먼 캡처

적 인권을 같은 수준에 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발전이다. 어떠한 인권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며 종교 자유도 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7월 창설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원회'는 낙태와 성소수자 권리를 수용하기 위해 수년간 표류되었던 인권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성소수자 옹호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를 해당 위원회를 높

고 비판했다. 그는 "파키스탄 기독교 소녀들은 강제 결혼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중국 위구르 공동체는 확실히 박해를 받고 있다. 그가 (이에 대해) 언급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 기독교인과 북한 기독교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박해도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을 포함한 전 세계 무슬림 대다수 국가의 상황은 매우 끔찍하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매주 나이지리아에서 학살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잔혹 행위와 인권 침해를 살펴보면 종교적 박해가 그 중 하나이지만 (그의 발언에서) 강조하지 않은 것이 완전히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신장 지역 위구르 무슬림과 소수 민족, 종교 소수 집단학살을 통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언급했다. CP는 전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 우간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야당 정치인, 반부패 운동가, 독립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나 투옥 사건을 비난했다. 이미경 기자

## 데이비드 예레미야 "예수의 부활이 삶에 미치는 4가지 영향력"

미국 새도우 마운틴 커뮤니티 교회의 원로 목사이자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터닝포인트'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예레미야(David Jeremiah) 목사가 부활절에 관한 칼럼을 크리스천포스트에 최근 게재했다.



예레미야 목사 ©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아래는 '그 분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레미야 목사의 글에 소개된 예수의 부활이 삶을 변화시키는 4가지 방법에 관한 요약이다.

1.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용서 받은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는 우리의 실패를 믿음과 신실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만일 실수나 후회가 오늘날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것을 빈 무덤의 타오르는 빛에 맡기고 자유 속에서 살아가라. 당신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에 대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

2.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서 이것을 집에 비유했다. 바울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라(고전 15:58)"고 말했다. 부활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시지이며, 당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진리이다.

3.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보여주었고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바로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엡1:18)"

부활의 힘은 여러분이 무엇을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상관없이 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되살리실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 모든 것도 고칠 수 있다.

4.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끝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요11:25)"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악을 이겨내셨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죽음이 있을 때 슬픔을 갖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 목사로서 나는 많은 관점에서 왔고, 나는 이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는 누군가가 이 생을 떠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는 죽음과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삶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 있다는 것을 안다.

김유진 기자

## 미국인 64% "바이든은 신앙적 당파별로는 큰 차이 보여"

퓨 리서치 센터의 새로운 조사에서 미국인 대다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신앙심 정도에 대한 인식은 당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3월 1일부터 7일까지 미국인 1만2055명을 대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미국인 응답자의 58%는 바이든을 '모마 가톨릭 신자'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인의 31%는 '그의 신앙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고, 6%는 바이든을 개신교 신자로, 3%는 무신론자, 1%는 다른 종교에 속한다고 답했다.

그 중 민주당원의 63%는 바이든을 가톨릭 신자라고 답했으며, 공화당 지지자는 55%가 이에 동의했다.

바이든의 종교성과 관련하여, 미국인의 과반수(64%)는 '대통령이 신앙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중 37%는 '어느 정도 신앙적'이며, 27%는 '매우 신앙적'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원과 지지자의 압도적 다수(88%)는 바이든을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 45%는 바이든이 '매우 신앙적'이며, 43%는 '어느 정도 신앙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원의 9%는 대통령이 '너무 신앙적'이

지 않다'고 답했으며, 3%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도 공화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견은 확연히 달랐다. 공화당원과 지지자의 7%만이 바이든을 '매우 신앙적'이라고 생각했고, 29%는 그를 '다소 신앙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다수의 공화당원은(35%)는 그를 '너무 신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고, 29%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고 단언했다.

바이든이 얼마나 자주 그의 종교적 신앙과 기도를 언급하는지에 대해 묻자, 미국인의 61%는 '자신의 신앙과 기도를 적절한 정도로 언급한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79%가 동의한 반면, 공화당원들은 4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이 신앙과 기도를 '너무 적게' 언급한다고 하는 민주당원은 11%에 불과했지만, 공화당원은 33%가, 전체 미국인의 21%가 동의했다.

모든 종교 단체들 중에서도,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35%만이 바이든을 '매우' 또는 '다소 신앙적'이라고 답해, 그의 신앙심에 대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퓨 리서치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가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친생명 유권자들이 낙태를 찬성하는 바이든을 향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유진 기자



###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을 이해하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tel. 213. 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www.marhlaw.com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까.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뺄 없는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시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 미 연합감리회, 매년 인종적 다양성 증가 출석률은 감소



미국 UMC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UMC

미국의 연합감리교회(UMC)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보고서에서 교회 출석률은 감소하는 반면, 교회 내부의 인종적 다양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지난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 저자인 케빈 D 도허티(Kevin D Dougherty) 외 2명의 연구원이 쓴 "회중과 공동체의 인종 역학 연구: 연합감리교회 종적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사회과학 학술지 '소셜 포시스(Social Forces)'에 최근 실렸다.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2만 명 이상의 UMC 집회의 데이터를 추적해 이뤄졌으며,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인구조사 자료와 결합하여 연구가 진행됐다.

보고서는 다인종 교회는 '덜 안정적'이란 결론을 내린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인종적으로 다양한 감리교회들이 같은 지역의 백인 교회보다 더 높은 참석률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라르도 마르티(Gerardo Martí) 데이비스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다인종 집단이 덜 안정적이라고 보고한 이전 연구와는 놀랄만한 대조"라고 평가했다.

연구는 또한 백인과 비백인 감리교 교회 모두 백인 지역에 있을 때 더 높은 출석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백인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백인 교회는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마르티는 그들의 연구 결과가 "교회가 단일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집중함으로써 성장한다는 교회 성장 운동의 일반적인 가정(popular assumption)에 도전한다"며 감리교회의 경우, "인종을 넘나드는 것이 성장을 위한 더 나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10월, 미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인종적으로 다양하며 수십 년 동안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퓨 리서치는 또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소수 민족과 젊은 사람들이 더욱 그러한 반면, 백인들은 이러한 증가하는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고 했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의 40% 이상이 미국의 증가하는 다양성을 좋게 인식한 반면, 이에 동의하는 백인 성인은 14%에 그쳤다.

김유진 기자

### 미국인 57% "인생의 의미와 목적 생각" 10년 전보다 증가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오늘날의 미국인들이 10년 전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생각하고 있다고 Baptist Press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의 과반수 이상(57%)은 '내 인생에서 더 많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정기적으로 가진다고 답했다. 5명 중 1명은 매일(21%)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어 매주(21%), 매달(15%) 또는 매년(4%) 그 문제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4명 중 1명(23%)은 더 많은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결코 궁금하지 않으며 15%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2011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에서 미국인의 51%는 정기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28%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의 5명 중 4명(81%)은 '모든 사람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3명 중 2명 이상(68%)은 '삶의 최우선 순위는 더 깊은 목적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인의 79%는 '자신의 삶에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각각의 비율은 2011년과 유사했으나, 강력하게 동의하는 응답은 하락했으며,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대답은 올해 들어 상승했다.

이에 대해 스톡 매코넬 라이프웨이 전무이사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미국인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일에서 한발 물러나고 있다. 더 나은 것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삶에 대한 비판적인 추구가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인 5명 중 3명(59%)은 '자신이 삶의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고 답했으며, 그 중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 속한 미국인의 80%가 여기에 동의했다.

반면 미국인 4명 중 1명 이상(28%)은 더 높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종교와 무관한 미국인(37%)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교회를 자주 출석할수록 삶의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 달에 4회 이상 교회 참석자(76%)가 가장 높았으며, 1~3회 참석자(69%), 한 달에 1회 미만 참석자(51%)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의 절반 가량(45%)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임을 확인하는가?'에 대해 궁금해 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인의 37%는 그 질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8%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2011년에 비해, 오늘날 더 많은 미국인들이 '매일 천국에 갈지 궁금해 한다'고 답했으며(8%→15%)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46%→37%)은 더욱 감소했다.

또한 한 달에 4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46%)은 종교와 무관한 사람들(47%) 만큼이나, '자신의 영원한 행선지에 대해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서로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라이프웨이는 추측했다.

특히 개신교인(37%)이 가톨릭교인(26%)보다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았다.

매코넬은 "천국에 가는 문제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천국에 갈 것이라고 완전히 확인하는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지 않는다"며 "성경은 천국에 당신을 위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미국인의 거의 절반은 매년 멈춰 서서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성인 5명 중 4명 이상(85%)은 '물리적 세계와 사회보다 삶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 비율은 10년 전과 유사하지만, 2011년에는 강력하게 동의한 응답자가 67%인 반면 올해는 43%로 줄었다.

이번 연구에서 18~34세와 35~49세 미국인(87%)은 65세 이상(79%)보다 물리적 세계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종교와 무관한 사람들은 5명 중 1명(20%)만이 여기에 동의했다.

김유진 기자



<p><b>LA 지역</b></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p> <p><b>김성식 담임목사</b></p> <p><b>LA백송교회</b> 백암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p> <p>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p> <p><b>씨니김 담임목사</b></p> <p><b>LA씨티교회</b>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p> <p>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3부예배(저세대에)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일(수) 오후 7:30</p> <p><b>김기섭 담임목사</b> www.LAsarang.com</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영혼과 이면 2세를 책임지며, 이면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p> <p>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코너) T. (213)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b>장태원 담임목사</b></p> <p><b>LA세계선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p> <p><b>최순환 담임목사</b></p> <p><b>New Church</b>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p> <p>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tdta.com</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p> <p><b>한천영 담임목사</b></p> <p><b>갈릴리선교회</b>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p> <p><b>강진웅 담임목사</b></p> <p><b>갈보리민음교회</b>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p> <p>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p>
<p>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아침예배 오후 12:30 침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b>박현성 담임목사</b></p> <p><b>나성열린문교회</b>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b>차성구 담임목사</b></p> <p><b>나성제일교회</b>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서치예배(델리예배) (소세베일) 오전 11:00</p> <p><b>정정수 담임목사</b></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흠뻑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b>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b></p> <p><b>김경렬 담임목사</b></p> <p><b>산타모니카한인교회</b>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토)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b>곽부환 담임목사</b></p> <p><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p>
<p>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b>이순환 담임목사</b></p> <p><b>한샘교회</b>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p> <p>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강지원 담임목사</b></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b>LA 동부, 라스베가스</b></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p> <p><b>고태형 담임목사</b></p> <p><b>ECO선한목자교회</b> 교회여, 성숙하라!</p> <p>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b>이희철 담임목사</b></p> <p><b>갯스월연합교회</b> 여호와를 찾을때</p> <p>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p>
<p>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b>김성원 담임목사</b></p> <p><b>남가주새소망교회</b>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p> <p>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p>	<p>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b>신승환 담임목사</b></p> <p><b>나성한미교회</b>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p> <p>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p>
<p>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p> <p><b>우영화 담임목사</b></p> <p><b>동부사랑의교회</b>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p> <p>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b>조용철 담임목사</b></p> <p><b>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b></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p>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 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특별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조준민 담임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15(교육관)  
종교개혁 주간 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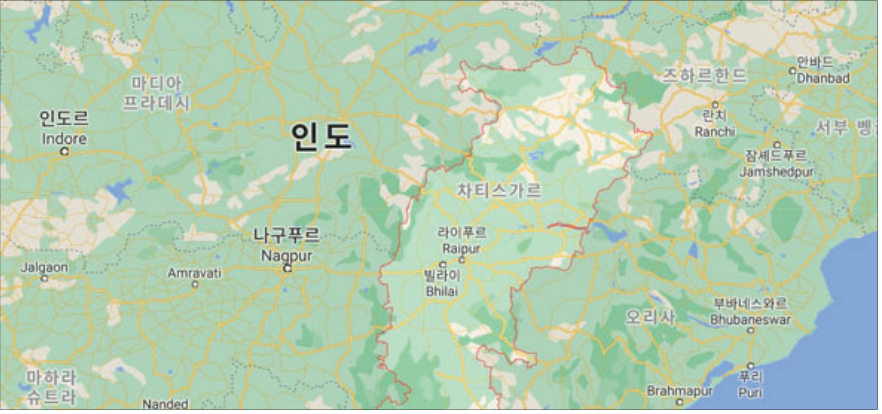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 인도 개종금지법 통과 마을, 부족 신 숭배 강요 기독교 가정 10여명 폭행



인도 중부 차디스가르주 ©구글맵

인도 중부 차디스가르주의 한 마을에서 기독교인 가정들이 부족 종교를 숭배하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다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4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인은 피신했으나, 대피하지 못한 기독교인 10명은 구타를 당하고 개종을 강요 받았다.

바스타(Bastar) 지구의 칭구르 마을을 탈출한 기독교인 중 한 명인 라이다르 나그(Raidhar Nag)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마을 모임은 우리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며 “그들은 우리가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 무료 정부 식량을 얻거나 심지어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호소했다.

나그는 지난달 10일 그의 가족과 다른 기독교인 가족들은 마을을 떠났지만, 4개의 기독교 가정은 마을 깊은 곳에 은둔해 있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을 주민에 의해 위치를 추적당했고, 구타를 당한 뒤,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고 부족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설명했다.

칭구르 마을의 긴장 상태는 지난달 2일 지역 목회자에게 치유 기도를 요청한 마을 주민이 숨지면서 시작됐다. 지역 경찰의 도움으로 마을 기독교인들은 주민들의 반대를 피해, 그의 시신을 다른 마을로 옮겨 매장해야 했다.

영국의 크리스천연대 월드와이드(CSW)에 따르면, 지난달 같은 지구의 수구다 마을에는 70여명의 폭도들이 기독교인 가정을 난입, 성경을 불태우고 가구를 파손했으며, 최소 6명의 기독교인이 중상을 입었다.

대부분이 부족민 또는 토착민 집단인 차디스가르 주의 기독교인들은 지난해 9월 부터 공격을 받는 횡수가 증가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이 박해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막으려는 급진적인 힌두 단체들의 소행일 것으로 보도했다. 이 급진적 민족주의 단체들은 정부가 개종자들의 교육과 취업 기회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며, 주로 부족 인구가 다수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차디스가르 주는 인도에서 ‘개종금지법’이 시행되는 9개 주 중 하나이다. 이 법은 기독교인들이 힌두교도를 개종하기 위해 돈이나 결혼,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수십 년간 시행되었지만,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 법은 용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유죄이며, 허위 신고로 혐의를 받아도 체포가 가능해, 주로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기독교인 박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오픈 도어즈 지난해 인도를 ‘세계감시 목록’에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중 10 위에 선정했다.

오픈 도어즈는 “현재 여당이 집권한 2014년 이후,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 증가했고, 힌두교 급진파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인도인이려면 힌두교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신앙은 비인도인으로 간주한다”며 “힌두교 배경이나 부족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의해 극도로 박해를 받는다”고 실태를 보고했다.

강혜진 기자

##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12:45(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교육관)

###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헌악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광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물 MP제물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성경회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수요일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 종교동부 오전 11:30(금요일예배: 오후 7:30)  
1514 Hinsdale St., Northridge, CA 91325 EM: 오후 1:30  
(818)935-5887

###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choonghyun.org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이동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m.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태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붙잡혔던 선교사, 시신으로 발견돼



베아트리스 스톡클리(Beatrice Stockly) 선교사의 생전 모습.

말리 외부부가 수 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기독교 선교사의 유해가 발견됐음을 확인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이 유골들은 DNA 테스트를 통해 베아트리스 스톡클리 선교사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말리 당국은 스위스 송환을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에게서 그녀의 유해를 넘겨받았다.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연방평의원은 “슬프게도 인질로 붙잡힌 여성이 사망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그녀의 유해를 가족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 시신 확인을 위해 도움을 준 말리 당국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스톡클리 선교사와 함께 지하디스트들에게 붙잡혔다가 지난 2020년 석방된 프랑스 자선사업가 소피 페르토넨은 “스톡클리 선교사가 살해됐다”며 “그녀는 사하라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거부한 뒤, 납치범들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스위스 출신의 베아트리스 선교사는

강혜진 기자

2000년 팀북투에 도착한 후 한 스위스 교회에서 협력하다가 독자 사역을 했다. 지하디스트 무장단체들이 자주 나타나는 팀북투 아바라조우에서 생활한 그녀는 여성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사교적으로 기억되고, 꽃을 팔면서 기독교 자료들을 나눠주곤 했다고 함께 사역했던 말리의 교회 지도자가 전했다.

스톡클리 선교사는 2012년 4월에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게 납치됐다가, 부르키나파소 당국의 중재로 풀려났다. 당시 그녀는 어머니와 형제의 간청으로 스스로 돌아갔다가 ‘팀북투가 전부’라며 말리로 돌아와 사역했다.

말리 북부는 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지부인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에다(AQIM)를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 “한국교회 보루 될 것” ‘예정’ 총회 창립 초대 총회장에 심하보 목사



총회장 심하보 목사는 “올바른 국가관, 신앙관, 도덕관, 제도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우리 교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자유주의 신학 사조를 거부하며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표방하는 새로운 교단이 설립됐다.

6일 오후 2시 은평제일교회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앙 수호를 외치는 목회자들이 모여, 심하보 목사를 초대 총회장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정)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설립 취지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WCC에 참여하면서 바른신학과 신앙을 통한 교회의 본질적 개념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며 “본 총회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칼빈주의 신학사상에 기반을 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WCC, NCCK 및 동성애를 반대하고 오직 성경과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진리이자 생명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또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신학과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여 결의하고 총회를 설립하게 되었다”며 “본 총회는 누구든지 우리와 같은 생각과 신앙을 가진 교역자라면 함께 연합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총회를 세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부 예배는 조영호 목사(도담교회)의 사회로 차동욱 목사(신정교회)의 기도, 제갈덕규 목사의 성경봉독, 윤항기 목사의

특송, 박만수 목사(증경총회장)의 설교,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의 축사, 권태진 한교연 직전 대표회장의 영상축사, 심하보 목사의 환영사, 민충만 목사(소망교회)의 광고, 윤종식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초대 총회장에 심하보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심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교회에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배교행위를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회장은 “나태를 함범화하고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 동성애를 인정하려 하고 건강가정과괴법이라는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권단체는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거리에서 외쳤지만 한 교회로는 불가능했다. 힘을 모아야 사탄의 세력, 제도를 막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진실한 교단이 되기 위해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발해야 한다. 감사하게 교단을 준비하신 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출발하게 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올바른 국가관, 신앙관, 도덕관, 제도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우리 교단이 앞장서겠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교회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 오세훈 당선, ‘서울광장 쿼어축제’에도 영향 줄까?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7.50%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미 서울시장을 지냈던 그는 10년 만에 같은 자리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시장직이 오랫동안 보수정당 소속 인사에게 돌아가면서 기독교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다만 아닌 ‘서울광장 쿼어축제’ 때문인데, 이를 반대해 온 교계는 오 시장이 앞으로는 쿼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막아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 동안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광장에서 쿼어축제가 열릴 수 있었던 건 진보성향의 박원순 전 시장의 영향이 컸던 까닭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 당선은 선거 전이었던 지난 2월 2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서울시장광장사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인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었다.

오 시장이 당시 언급했던 서울시장광장 사용심의위원회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보인다.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 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그 수리 주체는 위원회가 아닌 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수리하는 주체 역시 최종적으로 시장인 것이다.

다만 불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교계 한 관계자는 “쿼어축제가 더는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않길 바라지만, 서울시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정을 비롯해 이미 서울시구석 구석에 쿼어축제를 옹호하는 이들이 다수 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 당선 개인이 서울광장 쿼어축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이번 선거가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교계가 쿼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6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6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6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으로 활로 살려 생애공로제 실시. EBS 뉴스 4월 15일 11시 45분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례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셀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제자성도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벌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찬양부 오전 11:30  
KM대학원생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 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정기정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개강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1 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초대교회사	Daniel Min
Tue	7:30 PM - 9:30 PM	데살로니가후서,고린도전서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영성 신학	Elijah Kim
Thu	7:30 PM - 9:30 PM	선교신학2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	Jong Y Kim
Sat	7:30 PM - 9:30 PM	시편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인류의 어머니 이브의 소망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적 인격을 가졌으나, 서로는 서로를 향하여 채워지고, 의뢰하고, 사랑하고, 풍성해지는, 함께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존재임을 알았기에, 이브가 홀로 있을 때에 공격을 하였습니다. 아담 또한 이브에 의하지 않고는 쓰러뜨릴 수 없음을 사탄은 알았습니다. 아무 의심이나 갈등이 없던 시절의 지극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브는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후, 또 다시 남편을 유혹하여 죄에 떨어뜨립니다. 이브의 두가지 죄는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또 남편을 유혹하여 죄에 동참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잘못은 이브의 죄를 붙들여 제지시킨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죄에 동참하여 공범이 된 것입니다.

이브의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낙원에서 이브와 함께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텐 동산,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의 평화로운 삶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이브는 장미와 백합의 동산을 상실했고, 대신 가시나무와 영경귀가 달린 예텐의 동편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은 포도와 능금의 언덕을 버리고 잡초와 넝쿨을 걷어내며 굶은 땅방울을 흘려야 했습니다. 평등함 속에서 이브에게 설복당했던 아담은 이제 거꾸로 이브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로 오게 될 해방자의 출산입니다. 아들로 올 해방자를 낳는 일은 이제 역사의 왜곡을 바로 세우는 가장 고되지만 의미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브는 그 “여인의 후손”을 보지 못한 채로 소망하며 슬프게 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해방자 그리스도는 좀더 시간의 경과를 필요로 합니다. 여인의 소망은 좋은 자녀를 낳는 것과 양육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성처럼 많이 오해되는 존재도 없습니다. 이브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이브는 마치 “열려진 죄의 현관이나 통문”이 된 것처럼 비난받습니다. 더구나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오해받았습니다. 이브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지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랑과 연대를 위하여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뼈나 발뼈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친밀한 존재임을 미루어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어린이로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이브 또한 어린이로 창조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브는 피조된 첫날부터 온전히 성숙한 여인이었으며, 첫눈에 아담의 경탄을 자아낼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훈련과 교육과 문화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진 신부였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던 순간은 100년도 10년도 1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창조의 여섯째 날에 그들은 함께 창조되었으며, 같은 날에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지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독자

## 허물 덮는 사랑!



안 성 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그리고 바로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는데, 방송을 보고 저에게 전할 특별한 감사가 있어서, 제 친구들을 수소문하여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 친구가 저와 연락이 되자 대뜸 “안목사님 덕분에, 가정이 깨지지 않았네요!”하는 것입니다. 제가 ‘글로벌 에세이’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허물을 덮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성령께서 저에게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됨을 계시하기 전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덮으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 허물을 덮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허물이 덮어진 자리가 천국이요, 허물이 드러내는 자리가 지옥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성령께서 이혼을 놓고 고민하던 이 친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신앙 안에서 회복할 결단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은 아내의 잘못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였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저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찾아 연락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 하셔서 부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기독교 방송 CTS-TV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목회자들의 말씀을 약 5분간 ‘글로벌 에세이’라는 형식으로 방송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아름다운 배경이면 좋겠다고 해서, Long Beach Shoreline Village와 Queen Mary를 배경으로 5분짜리 메시지로 두 편의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중에 한 편이 바로 얼마 전에 한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한 동안, 교회 이메일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저를 아는 여러 분들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알던 분들이, 방송을 보고서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교회 이메일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미주 방송과는 달리, 한국 방송의 영향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 교회론(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하나가 교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는 단순한 사교단체나 사교클럽이 아니다. 또한 혹자들은 교회가 구제단체 (relief organization) 또는 구호단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단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가 구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구제단체인 것은 아니다. 교회는 구호단체의 수준을 무한히 초월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공동체를 이룬 것, 바로 그것이 교회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바른 개념에 기초해서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그림언어들, 이미지들, 비유들, 상징들, 초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2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선포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 1:22-23).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성경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깊게 묵상하면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도출된다.

첫째, 비유컨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2의 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성육신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 1의 몸을 가지셨다. 예수님의 제 1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요한복음의 증언과 같이 예수님이 영혼과 몸을 포함하는 사람의 본성 전체를 취하셔서 100퍼센

트 하나님이자 100퍼센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셨던 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주님이 성육신하실 때 취하셨던 몸은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의 상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존재한다. 그러나 주님의 제 2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이 땅에서 힘있게 출발하였고,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

둘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듯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면 교회는 죽을 수 밖에 없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순히 생명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부여된 원래의 기능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드러낸다. 모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를 통하여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다. 마찬가지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분과 완전하고도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특권을 부여 받은 것이다.

셋째, 몸 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감당하려면 그 머리의 명령과 뜻과 지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머리의 명령과 지령과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몸은 장애나 질병

상태에 있는 몸으로서 그 몸이 감당해야 할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과 지령과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심각한 질병상태에 있는 교회 즉 교회의 본래적 사명과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 예수님이 사데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의 교회이다. 즉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것이다 (계 3:1). 이 진리를 한 차원 더 밀고 나가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 목회자나 장로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심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 장로, 집사 등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넷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는 사람의 몸이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완전한 하나의 유기적, 생명 공동체를 이뤄야 함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각종의 지체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완전히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는 절대 연합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분리가 있다는 것은 그 몸이 심각하게 병들었음을 의미한다. 생물학적인 면에서도 사람의 몸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기능한다면 그 몸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런 몸을 가지고서는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볼 때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철저히 하나가 되어 기능하고, 움직이고, 역사할 때에만 교회의 본래적 기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2-3)고 권면하였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이 필요하다. 즉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는 교회의 본질이 하나의 조직적 공동체 (organization)이 아니라 유기적 생명체 (organism)임을 의미한다. 교회에도 일정한 조직체적 요소가 있음은 분명하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들과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같은 회의들은 교회의 조직체적 요소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조직체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운행과 생명의 흐름이다. 믿음과 생각의 하나됨이다. 같은 소원을 가지고 동일한 사명의식으로 뭉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진리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기적 공동체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5-16)고 선포하였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일티슈  
주말제전  
공미라고  
메그린8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주사면 안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향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 구원의 은혜보답의 지혜

누가복음 7:36-50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중략)...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49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구원의 은혜는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평생 살아 숨 쉬는 날 동안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지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하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보답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평생에 꼭 깨달음으로 지켜져야 할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상하게도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모셨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대접하기 위함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전개로 볼 때 그렇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으며 훼방하고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얻어 하늘나라 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큰 화제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본인도 궁금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세 사람이 문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옆으로 간청하기를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면 잠깐 가서 물을 떠올테니 손발을 씻고 집 옆에 나무 그늘에 앉아 쉬시면 떡을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막지역을 맨발로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디 앉아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필연적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은 이러한 이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손발을 초대해 놓고는 손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다는 것이고 그저 한 번 불러들인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동료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듯합니다. 죄 많은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결코 집에 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두 다리를 꿇고 한쪽 팔꿈치로 땅을 짚고 귀에다 한쪽 팔을 받히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

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처럼 비스듬히 누워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발치에 그 여인이 서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게하는 신지식(GOD KNOWLEDGE, 神知識)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오히려 죄 많기로 소문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행세하기 좋아했던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으로 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된 생활을 한없이 뒤우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속해 주실 분은 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기가 난감했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없는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인의 생명같은 정절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수건삼아 자기 눈물로 먼지와 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면서 가지고온 욕함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잘못생각하면 마치 창녀가 사내를 유혹하는 것처럼 음란의 유혹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딸이라는 것과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야 할 사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기 위한 가장 진지한 회개의 모습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소문대로 이 예수가 용한 선지자라면 모든 것을 미리 알아보는 사람일진대 자기 발치에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고 있는 그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더러운 여인인지 모르지 않을 것인데 가만히 두는 것을 보면 뭘 신통하게 알아 보는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돌이켜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쥘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쥘데 값은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탐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더 많이 탐감받은 자의 고마움이 더 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판단이 옳다하시고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도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도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

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도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하십니다.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온몸으로 흘러내리면서 몸에 향유가 젖어들면 여러 날 동안 향내가 향기롭게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머리에 부을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생각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정성과 죄 사함의 기대감에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한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의 행동을 마치 드라마처럼 세세하게 표현한 것은 그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하려 오신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두루 알게 하는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마주 앉아 있었어도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이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용기와 진실한 회개, 눈물, 욕함을 깨뜨린 것과 입맞춤의 모든 정성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만을 통하여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진지한 회개가 예수님께 인정받아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갈치레와 교회 안에서 감투쓰기 좋아하고 우쭐대며 행세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잘 믿는 것이라는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에 속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며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구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죄 많은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 그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영감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을 얻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0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하십니다.

거룩함을 찾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 안방까지 모셨으면서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6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도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을 벗어나고 구원 얻은 이 여인과 같은 겸손함과 죄 용서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었다 생각하는 분들도 더욱 성숙한 신앙을 위해 날마다 은혜보답의 지혜로 엮여가야 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신앙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보답의 지혜가 지속적일 때 구원의 은혜도 계속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주심을 보답의 지혜로 계속 예수님께 보 여드리면서 더 큰 은혜와 기대로 더 오긴하게 붙들여 써주시도록 후회 없는 신앙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영광중에 결실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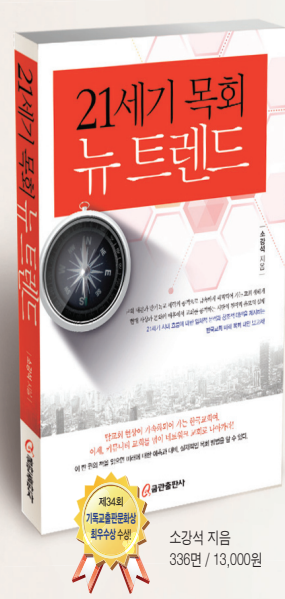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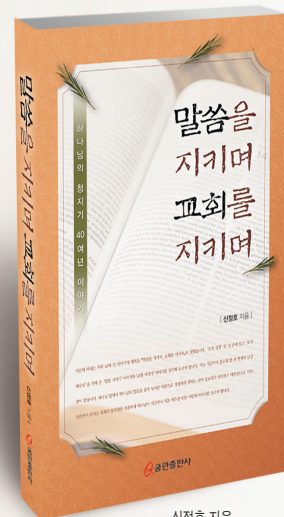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효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교회포럼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등을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고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매년 푸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직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조의 목장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한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339면 / 13,000원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만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총회 군 능어촌 부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장, 총회사기,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동문회장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380면 / 15,000원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14)

# 영화 <귀멸의 칼날> 흥행과 일본 시대극, 그리고 신사참배

<귀멸의 칼날> 속 암시적 형상화, '한국'으로 바꾸면 국수주의적·민족주의적 자긍심 측면서 거의 판박이 이 문화적 속성, 日 국수적 자긍심만큼 신앙에 부담

◆일본 문화와 기독교: 기독교 신앙을 국가 발전의 장애물로 본 일본 지도층

메이지 시대(1868-1912), 자력으로 근대화 성공한 일본은 서구 문물 수입에 있어 철저히 선별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부국강병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구의 법제(法制), 군제(軍制), 과학기술 수입에는 열심을 냈지만, 기독교 신앙, 인권 사상, 그리고 개인주의 등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서구문화 요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 근대화를 주도했던 조슈 번지사들은 기본적으로 존왕양이(尊王攘夷,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침)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왕을 천하 유일의 지도자로 옹립하고 서구 세력과 맞서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민족 중심주의 사상이었다.

이렇게 국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상을 고집하던 당시 일본 지도층에게, 서구에서 유입된 기독교 신앙은 국민 통합에 있어서, 혹은 국민의 집단적 세뇌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로 비춰졌다.

메이지 시대 일본 지도층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갖고 있었다. 제국을 건설하려면 식민지가 필요한데,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으려던 조선, 청나라, 그 외 동남아시아 각 지역으로 이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지도층은 자신들이 아시아 지역 패권국이 되려던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부국강병을 이루고 식민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말이 좋아 일치단결이지, 사실상 명령만 떨어지면 삶을 지고 볼 속으로 뛰어들만한 맹목적 충성심을 가진 종군을 길러내고 싶다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에 메이지 시대 교육정책은 일본국민 전체가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제국 번영을 위한 정보 욕망에 몰들도록 국민을 세뇌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원칙적으로 왕이나 집권자들의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충

성을 바치지 않는다. 또한 특정 민족의 번영을 위해 맹목적으로 헌신하지도 않는다.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충성과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순복은 근본적으로 수동적 성격을 갖는다.

정치권력과 민족에 대한 이런 수동적 태도는 제국주의를 지향하던 일본 지도자들에게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 신앙은 정권과 민족에 대한 적극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심 고취를 저해하는 사상이었다. 이에 일본의 기독교회는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특유의 군국주의 및 전체주의 사고에 몰든 일본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았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인들은 국가가 몰락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까닭에, 국가를 위한 충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대신 민족 이념이 강해졌지만, 그 역시 정보와 변영보다 생존과 회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의지할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념과 신앙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래 일본을 아시아 지역 선교 중심지로 삼으려 했던 미국 선교사들 다수가 한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국 성결교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01년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찰스 카우만과 어니스트 길보른은 원래 일본 복음화를 목표로 도쿄에 동양선교회를 창설하고 도쿄 성서학원을 열었다.

그러나 일본인 기독교인 전도는 정체된 반면, 도쿄 성서학원에 와서 가르침을 받고 귀국한 김상준과 정빈에 의해 한국에서의 성결교 전도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에 동양선교회 측은 아시아 지역 선교본부로 도쿄에서 서울로 옮기게 된다.

### ◆일본문화와 한국인: 일본과 판박이인 한국인들의 국수적 자존심

한국 성결교회의 사례로 보아 알



일본 만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수 있듯, 1900년대 초반 한국은 서양인 선교사들을 통해 전파된 기독교 신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한국의 기독교 신앙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골칫덩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국인들을 일제에 충성하도록 포섭하고 세뇌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한국의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이었다. 게다가 한국은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는 상황까지 겹쳐, 민족 이념과 기독교 신앙이 거의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일제가 한국 기독교회에 일찌감치 신사참배와 예배 중 동방요배를 강요한 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충성을 포기하고 일왕과 일본 제국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도록 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일본의 자민족중심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신념이었고, 따라서 일본 내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신사참배와 예배 중 동방요배를 강요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1891년 우치무라 간조 불경 사건(개신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우치무라 간조가 교회 내 일왕숭배를 거부한 사건)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저 유명한 신사참배 강요 사태가 발발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몰락한 후에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를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일본 국민의 충성 대상을 일왕과 일본 제국으로부터 일본 민족과 전통 문화로 전환했다. 제국으로서의 일본은 패망했지만, 고유한 정신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민족으로서의 일본은 건재하다는 점을 내세워 기존의 국수적 정체성을 고수하려 했던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확보를 위한 군사적 파트너로, 그리고 냉전 시기 공산주의 패권국 소련과 중공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력확장 저지를 위한 정치, 경제적 방과제로 막대한 지원 하에 급격한 속도로 국력을 회복하면서, 일본문화 고유의 국수적 성향은 다시금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 선봉에 일본의 정신문화 및 대중문화가 서 있었다.

1950-1960년대 일본은 자국의 선불교 문화를 미국 서부 해안에 크게 유행시켰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태평양 전쟁 패망의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 소설과 시대극이 크게 유행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야마오카 소하치의 소설 <도쿠가와와 이에야스>이다.

일본에서는 국민소설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 덕분에, 일본 대중문화계에서는 현재까지도 센고쿠 시대 서사를 풀어내는 작품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중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시대극은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작된다. 하지만 일본의 시대극 대부분은 이런 목적에 더해 제국주의 열강 시절, 세계 최강국 미국과 맞선 대하던 시절의 국가적 자존심과 투쟁심을 되살리려는 동기를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슬램덩크> 작가로 유명한 이노우에의 타케히코의 <배가본드>, 와즈키 노부히로의 <바람의 검심>, 그리고 고토게 코요하루의 <귀멸의 칼날>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에서, 그것도 민족 이념을 강조하는 진보정권에 의해 조장된 극심한 반일 세태에도 불구하고 <귀멸의 칼날> 같은 작

품이 극장가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현재의 상황은 아이러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일본의 대중문화, 특히 일본 시대극 뒤에 담긴 일본의 문화적 자부심과 배타성, 그리고 제국주의적 요소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에 욕일기가 한 컷만 나와도 몸서리를 치는 것이 한국인들의 일본식 군국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 그것도 시대극 콘텐츠는 국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인들 자신이 일본과 유사한 민족 이념과 전체주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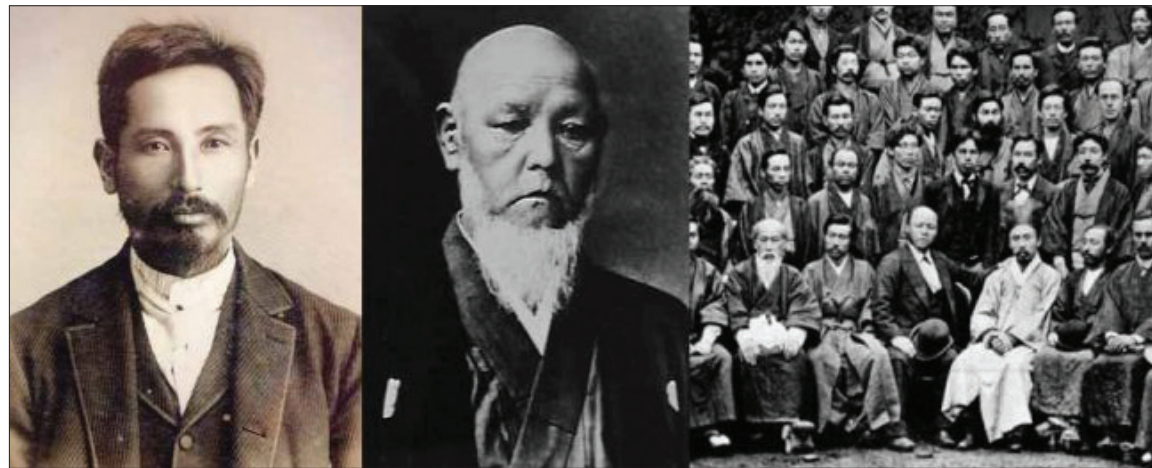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 속에 암시적으로 형상화된 '일본'이라는 이상을 '한국'으로 바꿔놓는다고 가정해 보자.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자긍심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은 거의 판박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런 문화적 속성은 일본의 국수적 자긍심만큼이나 기독교 신앙에 큰 부담이 된다. (계속)

###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메이지 시절, 일본 초기 개신교 지도자였던 오시카와 마사요시(1850-1928), 츠다 센(1837-1908)과 그의 기독교인 제자들. 사진 속에는 한국인 유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당시 일본 정부의 전체주의 정책 때문에 일본 내부 전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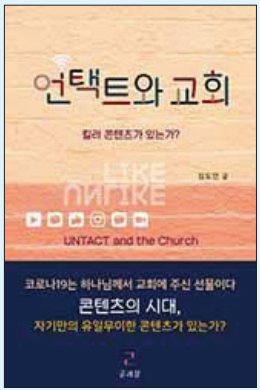
신사참배의 대명사격인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livejapan.com



일본의 시대극 만화 <배가본드>, <바람의 검심>, <귀멸의 칼날>. 일본 전통문화의 우월성을 옹호하며 자랑하는 국수적 민족주의 사상을 반영하는 작품들이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목회

# 언택트 시대, 교인과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언택트와 교회  
김도인  
글과길 | 296쪽

**코로나19 상황도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위기가 된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교회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 결과 교회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심각한 것은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는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이럴 때, 손 놓고 지켜보려는 바보는 없다. 자신만의 것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갔다. 백신도 개발되어 나라마다 집단 면역을 목표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올해 안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코로나19가 종식될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태학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사그라들 뿐, 결코 종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바이러스가 어떻게 완전히 종식되었습니까?”

지금처럼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밖쪽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고 2-3년 간격으로 인류를 덮칠 겁니다.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김재인 교수도 『뉴노멀의 철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혹자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만 하면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친다.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세계화를 막 완성한 자본주의의 여러 증상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 세계 오지의 풍토병이 모조리 전 지구로 퍼질 때까지 감염병의 주기적 대유행은 멈출 수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어렵다고 한다. 한국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단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만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는 언택트 시대를 앞당겼다. 이제 언택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언택트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 나왔다. 김도인 목사의 『언택트와 교회』다. 김도인 목사는 많은 책을 읽고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진 목사다.

저자는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한다. 위기에 대해 영국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저자는 낙관론자이기에, 처칠이 말한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준비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한국교회의 민낯을 이야기한다.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의 시민의식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영적 의식도 가져야 하지만, 시민 의식도 갖고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보다 높은 시민의식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언택트 시대에 크게 목사와 교인과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목사이기에, 그 중에서 목사가 준비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저자는 목회자가 첫째로 코로나19 이후 목회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목회자는 코로나19에 맞게 목회를 재정의해야 한다. 과거에 목회는 설교, 교육, 양육, 심방, 행정 등 수많은 것을 포함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설교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설교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목회가 설교로 축소되었다면, 설교에 올인해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

둘째, 자기만의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목회자는 자기 콘텐츠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 자기 콘텐츠가 없다면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려면 자기만의 콘텐츠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도들의 마음 코드를 읽으라고 말한다.

“언택트 시대에 중요한 것은 코드 읽기다. 다른 아닌 사람의 마음 읽기다. 마음을 읽지 못하면 소비자가 중심인 시대에 교회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목사는 교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교인의 마음 읽기에 더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한다.”

넷째, 영상, 지성,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다섯째,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

아가라고 말한다.

“인디펜던트 워커란 기존의 일의 개념을 깨뜨리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한 마디로 내부와 외부의 모든 요인들이 변해도, 내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디펜던트 워커의 특징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지만 개인의 기술, 능력, 자원으로 계약을 통해 일하고 돈을 받는 독립적인 노동 주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는 목회자를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지 2년째인 지금 작은교회들은 출석이 줄어들면서 특히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여섯째, 코로나19 이전보다 1.5배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지금, 목회자가 목회와 세상의 삶에서 뉴 노멀을 만들어 살아가려면 전보다 열정이 적어도 1.5배는 불타올라야 한다.

공부도 전보다 1.5배 이상 해야 한다. 기도도 전보다 1.5배 이상 해야 한다. 성경도 1.5배 이상 읽어야 한다. 1.5배 이상 해야 하는 것은 1.5배 이상 할 때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세상에서 인정받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때문에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다. 이런 남다른 리더가 교회에 많이 나와야 한다. 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목회자, 존경받는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리더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전방위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말한다.

“유튜브가 대체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자신의 교회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의 목회자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교회 밖까지 목회를 하겠다고 해야 한다. 예전에는 목회가 교인 관리만 잘하면 되었다.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전방위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저자는 언택트 시대에 교인과 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하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차별화된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달라진 세상 가운데, 자기만의 콘텐츠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곧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이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 때, 코로나19는 오히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자기만의 콘텐츠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다.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

강원국은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좋은 콘텐츠 조건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첫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사물보다는 사람과 연관짓는 게 좋다. 넷째, 내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콘텐츠여야 한다.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다시 도약하기를 소망해 본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지난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마스크를 쓴 채 감염 예방을 위해 교회 로비에서 손소독제를 바르고 있다. ©교회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드립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u stylist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함께 대응합시다!

큰 변화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COVID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고 있는 이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COVID 확산을 늦추겠다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잊지 않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차례가 되었을 때 백신을 접종받는다면 바이러스를 함께 물리칠 수 있습니다.

[cdc.gov/coronavirus](https://www.cdc.gov/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